

# 내리막 커브길 과속... 학생들 안전벨트 안 때 또 안전불감증 '人災'

##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

7일 오후 제주도 한라산 1100도로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 왜 컸나=우선 승객 40여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사가 위험한 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과속한 게 사고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0도 안팎의 경사도 내리막 일반통행로에 선명하게 남은 50여m의 브레이크 자국은, 버스가 내리막 커브길을 안전하게 선회하지 못할 정도로 과속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 커브길만 통과하면 비교적 평탄한 도로가 나타난다는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운전사가 평탄도로를 앞둔 내리막길에서 미리 탄력을 주다 제어하기 어려운 속도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버스 사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오던 '안전벨트'다. 경찰 확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사나 안내원, 인솔교사 역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라산을 등반한 직후 피곤함을 느낀 학생들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무방비로 졸다 반사적 행동마저 취할 겨를 없이 사고를 당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취약한 도로 구조 역시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사고 위험이 높은 내리막길에 구간별로 제한속도를 과감히 낮춰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브레이크 이상 추정=경찰은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브레이크 이상(베이프록)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베이프록(Vaper Lock)'이란 내리막길을 달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을 때 생기는 마찰열로 인해 휠 실린더의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공기방울이 발생, 제동력이 급격히 감소해 브레이크가 스펀지를 밟은 것처럼 갑자기 푹 꺼지면서 작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매라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정상 문제없었나=빽빽한 수학여행 일정으로 제시기에 다음 목적지 관광지에 도착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거나 버스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수학여행단 버스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 일정과 관광코스가 빽빽하게 짜여져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어쩔수 없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다 브레이크 이상이 발생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hbc@



특히 급경사와 완경사가 반복되는 1100도로 등 산간도로가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일정상 문제없었나=빽빽한 수학여행 일정으로 제시기에 다음 목적지 관광지에 도착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거나 버스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수학여행단 버스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 일정과 관광코스가 빽빽하게 짜여져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어쩔수 없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다 브레이크 이상이 발생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hbc@



7일 오후 제주 1100도로에서 일어난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학 여학생이 구급대에 의해 긴급 후송되고 있다.

# 여수산단 정전 사고 '복선'돼도 해결 못해

## 한전관계자 밝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정전사고가 잇따라 송전선로 복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과 같은 원인으로 정전사고가 재발할 때는 복선화도 정전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7일 "주선과 예비선 두개의 선로를 통해 전력 수용 업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복선화 작업의 경우 주선이 고장 났을 경우 예비선을 통해 전력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지난 3일과 같은 원인으로 정전사고가 여수산단에서 발생했을 경우 복선화도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여수산단 한화석유화학 공장의 나뒤통격 보호장치(피뢰기) 고장으로 여수산단 다른 업체 일부 공장들에서 순간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해 일부 공정이 섰다(가동중단)됐다"며 "복선화가 됐다 하더라도 순간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선로가 연결돼 있는

특성상 주선과 예비선 모두 순간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어 "복선화는 예를 들어 주선의 철탑이 무너지거나 전선이 끊겨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예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정전사태 공동조사단은 지난 6일 산단내 한화석유화학 등 현장확인 결과 5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호남화력발전처가 3일 오후 4시32분 58초부터 10시25분까지 6시간동안 가동이 중단됐다는 점을 최대 의문으로 꼽았다.

의회는 한전이 정전사고의 원인으로 한화석유내 수전소 피뢰기가 파손된 점을 주장하지만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있는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호남화력발전처의 중단으로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pkp@



## "AI 의심 군인 세균성 폐렴으로 확인"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됐던 병사는 최종 검사결과, AI인체 감염이 아닌 세균성 폐렴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AI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I감염의심으로 특수병실에 격리돼 있던 병사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검사(PCR검사)

와 세포배양검사, 혈청학적검사 결과 모두 AI음성으로 밝혀졌다.

또 백혈구 수치 등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회복됨에 따라 이 병사에 대한 격리조치도 해제됐다.

이 병사는 폐렴증상도 완전히 나아 정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다중의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운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 5·18 회원끼리 폭력

### 광주서부경찰 조사

지난달 5·18기념재단 이사장 취임식 당시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행사 진행을 막아 파행을 겪은 이후 이 단체 회원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54)씨 등 3명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삼부동 5·18 모 단체 사무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 음주운전 교통사고

### 驍광주 中부영사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7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주광주 중구영사 사무소 부영사 마모(4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전날 밤 9시 37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김모(29)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김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형기자 golee@

70대, 남녀 중학생에 원조교제 요구  
○70대 노인이 남녀 중학생을 여학생들로 착각하고 원조교제를 요구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달미.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추모(76·광주시 동구)씨는 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광주 A중학생 Y(여·13)양과 K(12)군에게 현금 30만원을 보여주며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원조교제를 하자"고 요구했다는 것.

○이상한 감새를 켜 두 학생은 추씨와 함께 인근 제과점에 간 사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붙잡힌 추씨는 "8년 전부터 성기능장애를 겪고 있다. 나쁜 짓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

○담당 경찰은 "추씨가 머리가 긴 K군의 외모를 보고 여학생으로 착각해 원조교제를 요구한 것 같다"며 "경찰관들도 K군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남학생인 줄 알았다"고 답변.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지리산 참사' 1년만에 또...침통한 순천

## 효천고·교육청 대책 분주

순천효천고는 제주 사고 소식을 접한 7일 오후 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정광기 교감의 지휘에 따라 경찰과 병원 등에 연락,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숨진 학생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교내 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했

으며 인사부장 인솔하에 피해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들의 제주도 단체 방문을 위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로 하나 둘 모여들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오열하기도 해 침통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정광기 교감은 "갑작스럽게 대형

사고를 당해 사고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며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은 수학여행 업체와의 계약 당시 보증을 들었고, 수학여행 버스도 당초 계약한 버스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중등교육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2명을 제주도로 급파했다. 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효천고에 김석현 부교육감과 장학관 3명을 보내는 등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지리산에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순천 매산중학교 학생 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한 지 1년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5월 8일 어버이날

뜻깊은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드려야 할상 감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최: 새벽예술어린이집

주최: 아미시네마